

##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와 전주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함께 한

# ‘2019 사랑의 난방 배달’

11월 18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과 조촌동 일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주최로 ‘사랑의 난방 배달’ 봉사가 진행됐다.  
취약계층에게 연탄 15,000장을 전한 따스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편집실

오전 9시, 전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여의동과 조촌동 일원에서 팍  
흘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찾  
아온 직원들이 전하는 온기로 가득했다.

‘2019 사랑의 난방 배달’은 전북산업보건센터와 전주시설관리공단노  
동조합이 서로 힘을 합쳐 진행됐다. 직원들은 전북센터 인근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며 즐거워했다.



추운 날씨에도 이웃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기꺼이 봉사에 참여한 직  
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탄과 함  
께 따뜻한 마음까지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많은 직원이 소감을  
전했다. 15,000장의 연탄이 전달된 덕에 마을은 올해도 따스한 겨울  
을 보낼 수 있게 됐다. 🍂



66 연탄과 함께  
따뜻한 마음까지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많은 직원이  
소감을 전했다. 99

